

文대통령, 여야 4당대표와 첫 오찬 회동

당초 70분보다 50분 넘겨...국내외 현안 폭넓게 소통 야3당 대표 국내 현안 날선 비판...文대통령 적극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외교 성과 실명을 위해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한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4당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국내외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총 12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당초 계획했던 70분보다 약 50분을 훌쩍 넘겼다. 이날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

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 불참을 선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주 수해지역을 찾아 복구를 위한 지원봉사에 나서 회동에 함께하지 못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그 뒤를 이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문 대

통령은 당 대표들이 올때마다 상춘재 앞문으로 마중을 나갔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여야 4당 대표들과 백악교 부근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날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술길로 자연스레 발걸음을 돌렸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10분 간의 산책을 마친 뒤 상춘재로 이동해 오찬을 겸한 본격 회동에 들어갔다. 오찬 메뉴로는 소고기 안심 요리를 메인으로 전복 냉채·게살

버섯스프·해삼·해물요밥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회동은 최근 미국·독일 순방에 대한 외교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독 정상회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 등을 야당 대표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그렇다고 오롯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야당 대표들은 국내현안에 대한 이슈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각 당 대표들은 인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신고리 5·6호기 중대신중 추진, 남북관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대책,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사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방안 등 국내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원칙과 관련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했을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았다. 지난 번에 유감스럽다고 말씀 드렸지만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내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문조서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제 찬반양론이 있을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호 기자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법무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권익위·법무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행정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고용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공정위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중기청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부·원인위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국방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통일부	▶국방개혁 및 국방 문화의 강력한 추진
통일부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외교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 체제 구축
외교부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산업부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자료: 청와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선정 文정부 5년 국정 나침반 공개

문재인 정부를 향후 5년간 이끄는 국정운영 밑그림이 19일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0여일의 활동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국정목표로 가다듬는 작업을 벌여왔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위의 활동 결과를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가 아닌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공개 행사로 마련했다.

총 85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290여 회에 걸쳐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공식적으로 8회의 전체회의, 210회의 분과회의를 벌였으며 총 500여 차례의 논의과정 끝에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잡았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내용과 정책포괄 범위, 유사성, 실천방안을 검토해 국정과제 단위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고 주제인 국정기획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정부 부처 장관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활동을 종료한 국정기획위로부터 이날 최종보고를 받은 뒤 100대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다듬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아왔던 국정기획위는 5월22일 출범해 지난 14일 해단식을 끝으로 54일 간의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이 기간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타가 될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0여일 간

201개 공약을 892개 세부공약으로 재분류 한 뒤 각 세부공약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해 냈다.

국정기획위가 그동안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전시작전통계권 조기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단 단계적 폐지 ▲통신요금 인하 ▲군 장병 월급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세·재정 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이 있다.

靑영수회담 불참하고 수해 현장 간 洪...달랑 1시간 남짓 봉사

19일 청와대 영수회담에 불참하고 수해 지역 봉사활동에 나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시간 정도의 봉사 후 바로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로부터 핀잔을 받았다. 홍 대표는 이날 낮 12시15분께 충북 청주의 한 뽕밭 농장에 도착했다. 당초 한국당에서 마련한 '정주 수해지역 현장방문 및 지원봉사 계획안'에 따르면 홍 대표는 오전 11시30분 지원봉사를 시작, 낮 12시30분부터 1시간 오찬 및 현안점

검을 마친 뒤 오후 6시까지 수해지역 지원봉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회의 일정으로 예정보다 45분 늦게 도착한 홍 대표는 깨진 장독에서 삼으로 된장을 덜어내는 등 복구 작업을 돕다 오후 1시10분부터 40분간 점심식사를 했다. 오후 1시50분까지 휴식을 취한 후 수해지역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한 홍 대표는 오후 1시55분께 봉사활동을 재개했으며 오후 2시15분까지 작업을 하다 차로 이동해 현

장을 떠났다. 전체적으로 1시간 남짓 봉사활동에 임한 셈이다. 이를 놓고 일부 주민들은 홍 대표의 방문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불만 소리를 냈다. 한 주민은 "이건 인제다. 해결책을 내놔야지 이렇게 보고 가는 광고성은 안 된다"며 "꾸며서 하는 건 안 된다"고 항의했다. 또 다른 주민도 "홍준표 대표가 온다고 여기저기 막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온 이상 원인을 다 파악하고 해결하고 가라"고 요구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